

# 러시아어의 비행위주성 . 생성문법적 고찰\*

정 하 경\*\*

## 1. 들어가며 1)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러시아어의 ‘수동성,’ ‘비행위주성,’ 혹은 ‘관조성’과 같은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흔히 이성과 논리로 대변되는 서유럽의 문화와 대조적으로 슬라브 문화는 반이성과 운명에 대한 순응 등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통념은 비단 문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분야뿐 아니라 언어학에서 또한 구체적인 학문적 담론으로 발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의 문화적, 인지적 특성으로 논의되어 온 ‘비행위주성’의 통사적 근거들을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념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HAVE/BE 소유표현 같은 통사적 매개변인에 의해 나타나는 언어의 유형학적 특성이 러시아어의 비행위주적 성격을 초래하게 됨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러시아어에 수동적, 비행위주적 측면을 드러내는 기제가 과연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넘어서, 언어체계, 그 중에서도 통사체계가 인지적,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견해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사피어-워프(Sapir-Whorf)의 언어 결정론은 한동안 보다 온건한 언어 상대주의로 대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아마존 피라하(Pirahã) 원주민어에 대한 에베레트

---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교수.

1)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2010년 11월 27일 한국노어노문학회에서 개최한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Anti-agentivity of Russian. A Syntactic Explan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Everett 2005)의 연구는 언어와 문화/정신 간의 보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언어보편성과 언어특수성에 대한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거대한 질문에 결정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져 있는 러시아어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종류의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언어보편적인 요소들을 환기시키는 데 있다.

러시아어에 나타나는 문화적, 정신적 요소에 대한 주요 연구 중 하나가 안나 비에쉴비츠카(Anna Wierzbicka)의 *Semantics, Culture and Cognition* (1992)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에쉴비츠카가 언어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던 언어 자질 중에서 통사적 차원에서 파생되는 러시아어의 비행위주성(“Not being in control,”)(Wierzbicka 1992, 413-430)에 대하여 생성문법적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sup>

## 2. 러시아어의 비행위주성(Not being in control; Anti-agentivity)

인지적 관점에서 통사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내가 무엇을 하는가,’ 즉 행위주 본위(agent-oriented)로 나타내는 양식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이 내게 일어났는가,’ 곧 피의자 본위(patient-oriented)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전자에서 행위 자체와 행위에 대한 주어의 의지가 중시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현상의 수동적 경험과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함이 주로 표현된다. 행위주는 보통 주격으로 나타나고 피의자-경험주는 여격 혹은 다른 사격으로 표현된다. 러시아어 통사체계에서는 이 두 번째 양식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비에쉴비츠카는 피의자 본위와 행위주 본위의 통사 유형의 차이를 나타내는 근거로 가능, 의무, 필연, 필요와 같이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해 부여하는 화자의 견해/입장, 곧 양상(modality) 범주의 표현방식을 들고 있다. (1a)

2) 기존의 문화적 접근을 보다 포괄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단적인 연구 예를 논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면상의 편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Wierzbicka(1992)가 이러한 방면의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점의 차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에 예시된 것과 같이, 영어와 같은 행위주 본위의 언어에서는 주로 주격주어와 양상 조동사를 사용하여 양상의미를 나타낸다.

## (1) a. 영어

He has to..., He should..., He could..., He might..., He must..., He can...

## b. 러시아어

Ему нужно...,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Ему нельзя..., Ему можно...

한편, 러시아어에서는 양상을 주격주어와 양상 조동사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지만(예: Он может...), 더욱 널리 사용되는 것은 (1b)와 같은 여격 경험주어와 양상부사의 결합이다. 이러한 여격 양상부사 구문은 주격 양상구문에 비해 그 양상성에 대한 책임이 여격논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불가항력, 피치 못함)를 묵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2)에 예시된 것과 같이 러시아어는 구체적인 양상술어 없이 여격주어와 동사원형만으로도 양상성을 나타낼 수 있다.<sup>3)</sup>

## (2) a. Не бывать Егору на Руси святой.

‘예고르는 성스러운 러시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운명]

## b. Сейчас бы покурить.

‘지금 담배 한모금 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원망]

## c. Не гордиться нам... а осознать свой народ в провале измощающей болезни...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이 쇠약케 하는 병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의무, 필요]

## d. Что мне было делать.

‘내가 무엇을 했어야 했던 말인가.’ [의무, 필요]

## e. Мне ведь уезжать.

‘난 정말 떠나야해.’ [의무, 필요]

이러한 구문은 행위주 본위 통사를 주로 사용하는 영어나 프랑스어에서도 발견된다(예: *It is for him to decide*; *C'est à moi de partir*). 그러나 역시 그 생산성과 의미적 중심성에 있어서 이들 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주

3) (2-3)의 예문들은 모두 Wierzbicka(1992), 413-430에서 인용된 것이다.

격 주어 구문이다.

셋째, 러시아어에서는 (3)의 예문들과 같이 여격 경험주와 재귀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상태/행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 |  |     |  |
|--|-----|--|
| (3) a. Мне сегодня не читается.<br>'내게는 오늘 안 읽힌다.'                     | cf. | Я сегодня не читаю.<br>'나는 오늘 읽지 않는다.' |
| b. Мне не спится.<br>'내게 잠이 안 온다.'                                     | cf. | Я не сплю.<br>'나는 자고 있지 않다.'           |
| c. Писалось тебе?<br>'네겐 글이 써지든?'<br>Чудесно писалось.<br>'아주 잘 써지더군.' | cf. | Я хорошо написал.<br>'나는 잘 썼다.'        |
| d. Мне не верится.<br>'내게는 믿기지 않는다.'                                   | cf. | Я не верю.<br>'나는 믿지 않는다.'             |
| e. Мне хотелось уйти.<br>'나는 떠나고 싶었다.'                                 | cf. | Я хотел уйти.<br>'나는 떠나기를 원했다.'        |
| f. Мне помнится.<br>'내게 기억이 난다.'                                       | cf. | Я помню.<br>'나는 기억한다.'                 |
| g. Мне так думается.<br>'내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cf. | Я так думаю.<br>'나는 그렇게 생각해.'          |

(3)에서 왼쪽 열의 여격 경험주와 재귀태 구문은 오른쪽 열의 주격주어와 능동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들과 의미적으로 구별된다. 여격주어와 재귀태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치 알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하거나 혹은 저절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오른쪽 열과 같은 주격주어+능동태 문장들에서 행위 자체와 행위에 대한 주어의 의지가 중시된다면 왼쪽 열의 여격주어+재귀태 문장의 경우에는 현상의 수동적 경험과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함이 주로 표현된다. 이러한 피의자 본위의 문장들은 러시아어에 대해 꾸준히 상정되어 온 비행위주성의 구조적 원천이 된다.

### 3. 러시아어 비행위주성의 생성문법적 고찰

#### 3.1. 여격 구문들의 기저구조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본 비행위주성의 구조적 근거들은 여격구가 행위주의 의미역을 가지는 여격+원형 양상구문과 여격이 경험주를 나타내는 여격+양상부사/재귀태 구문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여격+원형 양상구문은 (i) 내포된 원형부정사가 논항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수동태로 전환될 수 있고, (ii) 여격 논항의 의미역이 반드시 의무/필요의 경험주와 동지시체일 필요가 없으며, (iii) 여격 논항이 좁은 영역 해석(narrow scope reading)을 가진다는 점에서, (4)와 같이 여격구가 원형의 주어논항만을 나타내는 인상구조를 가진다(구체적 테스트 예문들을 위해서는 Jung(2009)를 참조하라). 이 구조에서는 여격구 자체가 외부논항이자 문법적 주어가 된다.

- (4) Где  $нам_i$  было спать  $t_i$ ?  
 ‘우리가 어디에서 자야 했던 말인가?’

한편, 여격+양상부사 구문은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능동태 원형내포절을 가지는 (5a)와 이것이 수동태로 전환된 (5b)의 의미역 구조는 달라진다. 원형절의 행위주는 변하지 않지만, ‘필요’의 경험주 의미역은 (5a)에서는 *Мне*가 (5b)에서는 *Ему*가 가진다.

- (5) a. **Мне** надо пригласить его на вечеринку.  
 b. **Ему** надо быть приглашенным (мною) на вечеринку.

(5)와 같은 통사적 테스트에 비추어 볼 때, 여격+양상부사 구문은 (6)과 같이 여격논항이 양상의 경험주를 나타내면서 원형내포절의 PRO 주어를 통제하는 통제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6) Где  $нам_i$  надо было **PRO<sub>i</sub>** работать?  
 ‘우리가 어디에서 일해야 했었지?’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재귀태의 경우에도 여격이 언제나 경험주를 나타내며, 원형내포절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내포절의 PRO 주어를 통제한다.

- (7) **Мне<sub>i</sub> хотелось PRO<sub>i</sub> уйти.**  
 ‘나는 떠나고 싶었다.’

재귀구문에서 경험주 여격구는 상응하는 비재귀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행위주와 동일한 지시체를 가진다(예: **спится vs. спит**). 그러나 이것은 주격주어가 비재귀술어의 행위주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방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재귀 형태소 *-sja*가 동사의 외부논항 의미역을 흡수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프랑스어의 재귀사 *se*의 유사한 기능에 대하여 Wehrli(1986), Chierchia(1989), Reinhart(1996) 등을 참조하라). 즉, 재귀동사의 행위주는 내포되는 것이지 여격구에 의해 의미역이 지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역 구조를 고려할 때, 여격+원형 양상구문에서 행위주를 나타내는 여격구가 외부논항으로 생성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격+양상부사 구문과 여격+재귀태 구문에서 경험주를 나타내는 여격구는 부가논항(Applicative)으로서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4 절 참조).

### 3.2. HAVE/BE 매개변인

여격+원형 구문은 HAVE/BE 매개변인의 직접적인 결과로, 여격+양상부사/재귀태 구문은 HAVE/BE 매개변인을 초래하는 일련의 문법화 과정의 산물로서 분석될 수 있다. HAVE/BE 변이란 소유구문이 HAVE와 주격주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BE와 사격주어(여격, 처소격, 생격 등)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원적 변이현상을 말한다. HAVE/BE 변이현상은 (8-9)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여러 언어들에서 나타난다.

- (8) HAVE-소유문  
 a. 스페인어

Juan tiene un libro  
 후안 HAVE 한 책

‘후안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b. 독일어

Der Hans hat ein Buch  
 정관사 한스 HAVE 한 책  
 ‘한스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c. 세르비아어

Petar ima sir/sira.  
 페타르.주격 HAVE 치즈.대격/부분생격  
 ‘페타르는 (약간의) 치즈를 가지고 있다.’

(9) BE-소유문

a. 벵갈어

Ram-er ek-ta boi aachhe  
 람.생격 한-접사 책 BE  
 ‘람에게 책이 한 권 있다.’

b. 아일랜드어

Tá leabhar agam  
 BE 책.주격 -에-나  
 ‘나에게 책이 한 권 있다.’

c. 러시아어

U menja est' kniga  
 나에게.PP<sub>GEN</sub> BE 책  
 ‘나에게 책이 한 권 있다.’

이러한 HAVE/BE의 변이현상은 매개변인적인가 아니면 HAVE와 BE의 사용이 개별 언어 고유의 자의적인 어휘적 특성인가?

먼저 어휘적 자의성과 매개변인적 변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린버그(Greenberg 1963)가 여러 언어에서 예측가능한 패턴으로 함께 나타나는 보편 자질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후, 매개변인의 개념은 제언어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적인 표층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매개변인 연구의 포괄적 소개에 대해서는 Baker(2001), Newmeyer(2005)를 보라). 매개변인적 변이란 이원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표층 변이로서 다른 변이현상과의 고정적인 함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과 규칙성, 그리고 함축성을 고려할 때 변이의 원인은 각 언어마다 공통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상정되는 기능소로 귀착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소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자질의 이원적 값설정으로 설명된다 ([±F]).

HAVE와 BE 소유표현의 변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사적 매개변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언어들이 둘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혹 한 언어에서 둘 다 사용되더라도 상이한 기능적, 의미적 편향성을 보인다). 둘째, (10-11)의 폴란드어와 세르비아어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언어 내에서 존재/소유문에서 HAVE와 BE가 부정(10)이나 시제(11)와 같은 통사적 요소에 의해 교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HAVE와 BE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선택된 개별 어휘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HAVE와 BE가 단일한 기저구조로부터 파생되는 동일 기능소의 표층 이형태로 파악될 때에만 (10-11)과 같은 현상이 설명된다.

## (10) 폴란드어

- a. W samochodzie **jest** silnik.  
 차에.PP<sub>LOC</sub> BE 엔진.주격  
 ‘차에 엔진이 있다.’
- b. W samochodzie nie **ma** silnika.  
 차에.PP<sub>LOC</sub> 부정소사 HAVE 엔진.부정생격  
 ‘차에 엔진이 없다.’

## (11) 세르비아어

- a. Ima (nekih/tih) knjiga (ovde).  
 HAVE.3.단수.현재 (약간의/그.생격) 책들.생격 (여기에)  
 ‘(여기에) (약간의/그) 책들이 있다.’
- b. Bilo je (nekih/tih) knjiga (u sobi).  
 BE.분사.중성.단수 조동사.3.단수(약간의/그.생격) 책들.생격 (방에)  
 ‘방에 (약간의/그) 책들이 있었다.’

셋째, HAVE/BE 소유표현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환경으로 확대 또는 전이된다. (12-15)에서 보인 바와 같이 HAVE/BE 소유표현은 완료구문이나 양상구문으로 전이된다. .

## (12) HAVE-완료

영어 I have read this book.

## (13) HAVE-의무양상

영어 I have to read this book.



## (14) BE-완료

아일랜드어 Tá sé déanta agam. [Orr 1984: 42]  
 BE.현재 그것.주격 행해진.분사 -에-나  
 ‘내가 그것을 했다.’

## (15) BE-의무양상

벵갈어 Ram-er Dilli je-te ho-be. [Bhatt 1998: 23]  
 람.생격 델리 가다.원형 BE-미래  
 ‘람은 델리에 가야한다.’

셋째, HAVE/BE 변이는 능력성과 같은 또 다른 통사적 매개변인과 함축적 관계를 맺고 있다. 트라스크(Trask 1979)의 유형학적 조사에 따르면, B유형 능력성(시제/상-분리 능력성)의 분포는 BE 소유표현의 사용과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sup>4)</sup> BE 언어에 해당하는 북부 러시아 방언에 (16)과 같은 시제/상-분리 능력구문이 발달한 것 역시 이러한 매개변인적 함축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된다.<sup>5)</sup>

(16) У Шрки<sub>i</sub> приведено своя<sub>j</sub> старая невеста.

‘슈르까가 자신의 나이든 약혼녀를 데려왔다.’

[Kuz'mina and Nemčenko 1971: 35]

그렇다면, 이러한 HAVE/BE 매개변인적 변이가 비롯되는 기저구조의 기능소는 무엇이며 그 자질은 무엇인가? Freeze(1992), Kayne(1993), Hoekstra(1994), Bhatt(1998), Jung(2008) 등에서는 기능술어 BE 아래에 내포되어 있는 피소유명사절(DP)의 전치사적 보문소(P=D)에 사격주어를 허가(license)하는 격자질이 존재한다고 본다. 프리즈(Freeze 1992)와 케인(Kayne 1993)은 격자질을 지니는 전치사적 보문소가 사격을 외부논항(소유주)에 할당

4) 그러나 그루지야어에서는 과거시제 타동사구문에만 능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사인 BE와 능력성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사격 행위주와 주격 피의체 표시, 완료 시제와 능력성간의 긴밀한 상관관계, BE 소유표현 등과 같은 형태통사적 특성에 근거하여 본 구문을 형태적 능력구문, 그 중에서도 시제/상-분리 능력구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Lavine 2000, Jung 2008). 형태적 능력구문에서 흔히 발견되듯이, 이 구문에서 사격 행위주구는 표층 주어로서의 통사적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6)에서 *y* 생격 행위주구 У Шрки는 목적어의 재귀사 *своя*를 결속한다.

하지 않는 경우 주절의 BE에 병합(incorporate)되어 표층에서 HAVE로 실현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P-to-BE incorporation). 호스트라(Hoekstra 1994), 정(Jung 2008)의 경우에는 (17)과 같은 구조에서 내포절의 전치사적 보문소에 격자질이 있으면 사격 소유주가 실현되지만 격자질이 없다면 외부논항은 나중에 시제핵(T)으로부터 격자질을 점검받음으로써 주격 주어로 나타나게 된다는 방식을 택한다.

(17) [TP T [FP F<sub>be/have</sub> [DP/PP P[±CASE] [I<sub>NP</sub> Subj [ n NP ]]]]]

이 방식에서 HAVE의 실현을 위한 P와 BE의 병합은 불필요하다. 비해석성 자질(uninterpretable feature)은 음성적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통사 단계에서 반드시 값이 정해져야 하지만 해석성 자질(interpretable feature)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Chomsky(2000, 2001)의 최소주의적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비해석성 자질인 논항의 격자질의 수만큼 격 허가를 하는 기능소(Case licenser)가 존재해야 한다. 통사적 파생의 순차성에 따르면, 내포절 파생 단계에서 비해석성 격 자질을 가지는 논항의 수보다 격 허가 기능소의 수가 적은 경우, 주절 파생단계에서 격 허가 기능소가 병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구문에서 내포절의 보문소가 외부논항의 격을 허가할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상위절에서 격 허가를 할 수 있는 BE의 이형태인 HAVE가 선택될 것이다.

HAVE/BE의 구체적 파생과정에 대한 제안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날지라도 BE와 HAVE가 기저에서는 하나의 기능적 술어이며 하위절 기능소의 격 자질 유무에 따라 상이하게 실현되는 표층 형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sup>6)</sup>

6) 마하잔(Mahajan 1997)은 이러한 HAVE/BE 매개변인을 어순의 차이(VO vs. OV)를 초래하는 핵방향성(Head-directionality) 매개변인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마하잔은 핵-후행(head-final)인 언어에서는 케인(Kayne 1993)이 주장한 HAVE를 파생시키는 P-to-BE 병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필연적으로 HAVE가 아닌 BE를 사용하게 되며 이것이 능력성 매개변인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OV 어순과 BE의 사용, 그리고 능력성 발달 간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힌디어와 같은 언어를 적절히 설명하는 반면, 러시아어는 여기에 직접적인 반례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러시아어는 VO 어순인 핵-선행(head-initial) 언어이지만 BE 소유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방향성, 곧 동사, 목적어간 어순과 HAVE/BE 매개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아직 더 논의되어

### 3.3. 여격 양상구문과 HAVE/BE 매개변인

소유구문에서 HAVE/BE 변이를 초래하는 기저구조의 차이는 그대로 양상구문과 완료구문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은 (18)과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

- (18) [TP T [FP F<sub>be/have</sub> [CP/PP P[±CASE] [<sub>VP</sub> Subj [ v VP ]]]]]  
 (Kayne(1993)과 Bhatt(1998)로부터 수정)

앞서 제시한 (17)의 소유구조와 (18)의 양상구조는 내포질의 성격에서만 상이할 뿐 동일한 구조이다. 명사적 투사와 문장적 투사의 구조적 대칭성을 주장한 스페노니우스(Svenonius 2004), 히라이와(Hiraiwa 2005)의 제안에 따르면 명사적 투사와 문장적 투사는 동일한 구조이되 파생과정의 각 국면(Phase, Chomsky 2001)에 삽입되는 [±N] 자질에 따라 그 범주적 성격이 다르게 실현된다. (17)의 소유구조에서는 명사적 투사인 DP가, (18)의 양상구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문장적(동사적) 단위인 CP가 내포되어 있으며, 두 구조 모두 동일한 파생과정을 거친다(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ung(2009)를 참조하라).

이와 같은 소유구문과 양상/완료구문 간의 구조적 유사성은 역사적으로 여격 소유주 구문의 문법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지배적 가설이다. 인도유럽어의 여격 주어 BE 양상 구문이 *mihī est* ‘내게(여격) 있다(BE)’와 같은 여격 +BE 소유/존재구문에서 발달해 나왔다는 시나리오는 널리 수용되어 왔다. 고대 러시아어에서 또한 러시아어 특유의 *ŷ* 생격 처소구와 함께 여격 소유구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여격 소유구문으로부터 여격+원형 양상구문이 발달해 나왔다는 가설이 널리 제기되어 왔다(Obnorskij 1927, Georgieva 1949, Borkovskij 1949, Potebnja 1958, Staniševa 1966, Kiparsky 1967, Ambrazas 2001, Bauer 2000, Holvoet 2003). 여격 소유구문 상태에서 동사원형은 목적의 기능을 가지는 명사화 동사(action nominal)의 형태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상정된다. 이 구문은 여격 소유주가 명사화 동사의 행위주 PRO를 통제하는 통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명사화 동사가 원형부정사로 범주변화가 일어나면서, 명사화 동사 부가어의 행위주 의미역과 주절의 소유주역을 동시에 나타내던 여격구는 단지 원형내포질의 행위주 의미역만을 나타내게 된다

야 할 필요가 있다.

(Jung, forthcoming). 이는 곧 통제구조에서 인상구조로의 전환으로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19) 그에게<sub>i</sub>; (그가)<sub>i</sub> 보내는 것을 위한 편지가 있다 > 그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BE 소유구문과 여격+원형 양상구문 간의 공식적인 구조적 유사성과 역사적 파생관계를 고려할 때, 여격+원형 양상구문은 HAVE/BE 매개변인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 구문의 사용을 특정 언어의 인지적, 문화적 특수성의 반영으로서가 아니라 제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이원적 자질변이에 의거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4장 참조).

### 3.4. 부가논항의 생산적 사용과 여격 경험주 구문

역사적인 관점에서 HAVE/BE 매개변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통사적 요소는 부가논항(Applicative)이다. 부가논항이란 의사(擬似)논항으로서, 술어로부터 투사되는 필수적 논항인 외부논항(주어)과 내부논항(목적어) 외에 덧붙여지는 논항을 말한다(부가논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eong(2007)을 참조하라). 이러한 부가논항에는 도구(instrument), 처소(locative), 수혜자(benefactive), 목표(goal) 등이 있으며, BE 언어에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사격 논항 또한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가논항에서 출발하였다.<sup>7)</sup> 러시아어의 경우에, 소유주를 표현하는 *y* 생격구는 탈격(adessive '~로부터') 부가어(혹은 부가논항)로부터 처소를 나타내는 부가논항을 거쳐 소유를 나타내는 외부논항으로 발전한 것이다(Isačenko 1974: 46, Heine 1997: 85).

사격 소유주를 명사적 내포질의 외부논항으로 파악하는 (17)와 같은 관점에서, 부가논항으로부터 사격 소유주가 발달해 온 과정을 문법화 현상으로 분석

7) 부가논항(applicative)과 부가어(adjunct)는 그 통사적 속성에 있어서 구별된다. 다른 구성소들과 통사적 상관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부가어와 달리, 부가논항의 경우에는 외부논항이 흔히 차지하기 마련인 문법적 주어 자리 Spec,IP로 이동하여 필수 논항들 내의 구성소를 결속할 수 있으며 때로는 술어 일치를 유발하거나 구조격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일린(Bailyn 2004)은 (i)과 같이 러시아어 재귀구문의 여격구 또한 재귀사 결속이 가능함을 보인 바 있다.

(i) Маше<sub>i</sub> нравится своя<sub>i</sub> работа.

[Bailyn 2004]

할 수 있다. 부가논항은 의미자질과 격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영 전치사 (null P)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부가논항을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받는 외부논항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곧 부가논항 P[+의미역, +격]를 단지 격자질만 가지고 있는 내포절의 전치사적 보문소 P[+격]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이 더욱 진행되어 이 기능소가 격자질마저도 가지지 않게 되면 외부논항은 주절의 시제핵(T)으로부터 격을 점검받게 되고 주절의 기능적 술어는 HAVE로 실현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기능소의 자질 감소로 정의되는 문법화의 요건에 부합한다(Roberts and Roussou 2003; van Gelderen 2004, 2007, 2008). 어휘소가 문법소로, 문법소가 또다른 문법소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전통적인 문법화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P의 자질 변화는 문법소가 또다른 문법소로 바뀌는 문법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는 중세 영어 *for* NP *to* V 구문에서 부가어 혹은 부가논항을 생성하던 전치사 *for*가 전치사적 보문소 *for*로 재해석된 것과 유사하다. 피셔(Fischer 1988)는 원래는 수혜주구였던 부가논항이 원형절과 인접한 위치 때문에 원형절의 주어로 재해석되었다고 주장한다(Cf. Stockwell 1976, Lightfoot 1979). 변화의 과정과 동인 면에서는 피셔와 차이가 나지만 개럿(Garrett, forthcoming) 또한 부가어적 성격을 가졌던 *for*-전치사구가 원형내포절의 전치사적 보문소+외부논항으로 재해석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개럿은 이 변화를 문법화로 파악하고 있다.<sup>8)</sup>

이렇게 부가논항에 의미역과 격을 할당하던 구성소(P)의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HAVE/BE 매개변인의 실현이 결정된다. 이러한 문법화 과정은 (적어도 인도유럽어에 있어서) HAVE가 BE보다 통시적으로 더 나중의 현상이며 BE 구문으로부터 HAVE 구문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8) 피셔는 중세 영어에서 SOV에서 SVO로의 어순변화가 *for*-수혜주구와 원형절의 인접성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럿은 *for*-전치사구가 특정한 "주관적(subjective)" 술어에 원형절이 내포된 경우에 한정하여 원형절의 주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셔의 제안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전치사 *for*는 여전히 주절의 "주관적" 술어로부터 파생되는 의미역을 그 뒤의 NP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따라서 *for* 뒤의 NP는 주절 술어와 원형내포절로부터 오는 두 가지 의미역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이후 주관적 술어 뒤라는 환경 외에도 다른 환경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for* NP는 완전히 주절 술어와 독립되어 원형내포절의 주어 의미역만을 나타내게 되었다.

있다(이러한 방향의 논의에 대해서는 Benveniste(1960), Isačenko(1974), Heine(1997: 77-79) 등을 보라). 그렇다면 행위주성은 부가논항을 허용하는 구성소의 문법화 정도가 진척될수록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어에서 여격 경험주와 양상부사 및 재귀태의 결합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곧 부가논항이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부가논항을 허용하는 구성소 P의 문법화 정도가 더딘 BE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4. 비교언어학적 고찰과 언어보편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러시아어의 비행위주성을 결정하는 것은 HAVE 언어와 대립되는 BE 언어의 매개변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HAVE/BE 매개변인이 제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대부분의 언어들이 HAVE/BE 매개변인에 따라 형태통사적으로 유사한 이원적 양식을 보이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의 예에서 보인 바와 같이 러시아어와 한국어, 힌디어는 모두 소유문에 BE를 사용하는 언어들이다.

- (20) a. 한국어      나에게 책이 한 권 있다.  
 b. 러시아어    У меня есть книга.  
 c. 힌디어      Niinaa-mā, apnii, mausii-ke liye baḍii mamtaa hai.  
                   니나.처소격 자신의 고모      -위한 많은 애정.주격 BE.현재  
                   ‘니나는 자신의 고모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Mohanani 1994: 176]

재귀태 혹은 피동태와 결합하는 부가논항 경험주의 생산성은 러시아어와 한국어간의 주요한 유사성이다. 이러한 구문들은 영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격 경험주 구조와 구별되며, 러시아어를 배우는 한국어 화자는 영어 화자에 비해 이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예를 들어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картина”와 같은 문장의 통사구조는 “I like this painting”이라고 말하는 영어 화자에게 다분히 낯선 구조인데 반하여, “나에게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는 한국어 화자에게는 단어 대 단어의 직역에 다름없는 동일한 구조

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3)에서 왼쪽 열의 러시아어 여격 경험주+재귀태 구문과 그 한국어 해석의 피동태/비행위주적 구문들은 서로 유사하며, 오른쪽 열의 주격주어와 능동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러시아어와 한국어 문장들과의 미적으로 구별된다.

한국어에서는 “\*나에겐 편지를 써야한다”와 같은, 러시아어의 여격+원형 구문에 해당하는 양상구문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1a-b)와 같이 여격과 양상술어를 사용한 구문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sup>9)</sup>

- (21) a. 나에겐 돈을 버는 것이 당장 필요하다.  
 b. 나에겐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

HAVE/BE 매개변인과 관련된 구문들은 또다른 BE 언어인 힌디어에서도 나타난다. (22)에 보인 바와 같이, 힌두어는 여격 경험주 구문(a)과 여격 행위주 양상구문(b), 그리고 시제/상 능격구문(c) 등을 지니고 있다.

- (22) a. Tuṣaar-ko vah kahaanii yaad aayii. [Mohanani 1994: 141]  
 투샤르.여격 그.주격 이야기.주격 기억.주격 오다.완료상  
 ‘투샤르에게 그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왔다.’  
 = ‘투샤르는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
- b. John-ko seb khaa-naa hai. [Bhatt 1998: 23]  
 존.여격 사과 먹다.동명사 BE.현재  
 ‘존에게 사과를 먹는 것이 있다.’  
 = ‘존은 사과를 먹어야 한다.’
- c. Ram-ne ravii-ko piṭṭaa hai. [Mohanani 1994: 70]  
 람.능격 라비.대격 때리다.완료상 BE.현재  
 ‘람은 라비를 때렸다.’

이와 같이 HAVE/BE 매개변인과 그것을 초래하는 문법화의 경향은 어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어들에 매우 유사한 통사적 효과를 가져온다. 화자들은 비슷한 통사적 효과를 보이는 외국어에 대해 심리적, 인상적인 동질성을 느끼

9) 매개변인적 변이는 모든 언어에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 변이의 확장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언어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매개변인의 존재는 다른 구문의 연쇄적인 발달에 필요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 되는 게 당연하며, 이러한 통사적 유형의 유사성이 문화적, 정신적 유사성으로 자칫 오해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비슷한 통사 구조에서 나오는 언어적 정감은 그 언어사용자들 간의 정서적, 정신적 유대감마저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이 어딘지 정서적으로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인상적 회고들은 실은 이러한 통사적 유사성에 어느 정도 힘입은 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지적, 문화적 분석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각 구문들이 인지적, 문화적 동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보인 바와 같이 이러한 구문들은 HAVE/BE 매개변인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HAVE/BE 매개변인적 변이가 기저구조의 한 기능소의 자질값의 차이로부터 파생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통사구조들은 특정한 문화적 특성으로 분석되기보다는 언어 기저구조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HAVE/BE 변이 자체가 기능적인 동인을 부과하기에는 이 변이 현상이 너무 보편적일 뿐 아니라 매개변인적이다. HAVE/BE 매개변인의 발전을 문법화의 진행 속도/방향의 차이로 볼 때, 이 차이를 초래하는 언어의 특성이 무엇일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법화를 포함한 언어변화에 대하여 재해석의 경제적 원리라는 다소 기계적인 동인과 당시의 언어 체계의 특성이라는 상황적 조건 외에는 여타 기능적 동인이 상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언어변화에 일반적인 이해와 상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기저구조의 매개변인적 차이가 그 언어 화자들의 문화적, 인지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거나 혹은 검증이 불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핵 편향성(head-directionality)과 같은 매개변인으로 인해 동사-목적어간의 어순과 전치사/후치사의 선택 등이 결정된다고 할 때, 핵-선행(head-initial) 언어인 영어의 화자들과 핵-후행(head-final) 언어인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 핵 편향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인지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치사적 보문소의 격자질 유무가 일련의 통사구문 발달에 대한 필요조건이 되고, 그러한 통사구문들로부터 특수한 인식적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전치사적 보문사의 자질 자체가 곧바로 그 인식적 특성과 인과관계를 맺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수동자 본위의 관점을 '선호'하는 러시아어의 비행위주적 경향성이라는 개념은 현상기술로서는 적절하지만, 언어의 특정 통사구조를 파생시키는 동인으로서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인지적 특성과 연관시키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 5.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인지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어의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행위주성의 근거가 되는 세가지 유형의 여격 구문들이 HAVE/BE 통사적 매개변인의 결과라는 것을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HAVE/BE 매개변인은 공식적으로는 내포절의 전치사적 보문소의 격자질 유무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역사적으로는 이 전치사의 자질 변화를 초래하는 문법화의 결과로 생겨나게 된다. 사격 소유주구의 발달과정에서, 부가논항을 생성하는 전치사 P가 외부논항에 격을 할당하는 전치사적 보문소로 재해석되면서 먼저 의미자질이 상실되고, 여기에서 또 격자질이 사라짐으로써 결국 타동술어인 HAVE가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곧 P의 문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언어가 부가논항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여격 경험주 구문들을 활발히 사용하는 BE 언어가 된다. 한편, 여격+원형양상구문은 HAVE/BE 매개변인의 확대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격 구문들은 어족과 관계없이 BE 언어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여격 구문들에 근거한 러시아어의 비행위주성은 러시아어 특유의 문화적 특징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통사적 매개변인의 결과로서 BE 언어들 공통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언어가 문화적, 인지적 특성을 담지할 수 있다

10) 기존의 문화적, 인지적 접근방식이 러시아어라는 구체적인 사례뿐 아니라 언어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비행위주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한 심사자의 지적은 정당하다. 필자 역시 비에츄비츠키가 비행위주성이 러시아어만의 특징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인지적 특성과 특정 통사구조간에 상정되는 인과관계이다. 즉, 기능적인 동인이 특정 통사구조를 실현시킨다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통사적 층위의 언어보편성이란 기능적 동인과 쉽사리 연계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는 사실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능적 관점은 특히 어휘적 특수성의 경우 보다 많은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 다양한 여격 구문들의 사용으로부터 비행위주성이라는 특성을 추출해 내는 것이 현상기술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반면, 그 근거가 되는 통사구조들이 자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소의 자질변이의 체계적 결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통사적 특성을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인지적 특수성에 의해 동기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통사구조는 어휘 목록의 다채로움과는 달리 그 변이의 범주가 이원적으로 매우 한정적이고 다른 통사적 특성들과 더불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민족의 인지적, 문화적 특성과 연결짓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mbrazas Vitautas(2001) "On the Development of the Nominative Object in East Baltic." *In Circum-Baltic Languages Typology and Contact 2: Grammar and Typology*, eds. Östen Dahl and Maria Koptjevskaja-Tamm, 391-41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ailyn, John(2004) "Generalized Invers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2, 1-49.
- Baker, Mark(2001) *The Atoms of Language: The Mind's Hidden Rules of Grammar*. New York: Basic Books.
- Bauer, Brigitte(2000) *Archaic Syntax in Indo-European*.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Benveniste, Emile(1960/1971) "The Linguistic Functions of "To Be" and "To Have." In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ated by M. E. Meek. Coral Gables, Florida: University of Miami Press.
- Bhatt, Rajesh(1998) "Obligation and Possession." In *The Proceedings of the UPenn/MIT Workshop on Argument Structure and Aspect,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2, ed. Heidi Harley, 21-40.
- Borkovskij, V. I.(1949) *Sintaksis drevnerusskix gramot. Prostoe predloženie*. L'vov; L'vovskij gos. un.
- Chierchia, Gennaro(1989) "A Semantic for Unaccusatives and its Syntactic Consequences," ms., Cornell University.
- Chomsky, Noam(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s. Roger Martin, David Michaels, and Juan Uriagereka. 89-155.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 Michael Kenstowicz, 1-52. Cambridge, MA; MIT Press.
- Everett, Daniel(2005) "Cultural Constraints on Grammar and Cognition in Pirahã", *Current Anthropology*, 46(4): 621-646.
- Fischer, Olga(1994) "The Development of Quasi-auxiliaries in English and

- Changes in Word Order." *Neophilologus* 78, 137-164.
- Freeze, Ray(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3): 553-595.
- Garrett, Andrew(Forthcoming) "The Historical Syntax Problem: Reanalysis and Directionality." In *Grammatical Change: Origins, Nature, Outcomes. Proceedings of Diachronic Generative Syntax VIII*, ed. by Dianne Jon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orgieva, V. L.(1949) "Sintaksičeskie konstrukcii, obrazovannye sočetaiem imenitel'nogo padeža s infinitivom ili narečem "nado" v sovremennyx russkix govorax." *Materialyi issledovaniia po russoj dialektologii*, 3. 40-59. Moscow-Leningrad; AN SSSR.
- Greenberg, Joseph H.(1963/1966)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 In *Universals of Grammar*, ed. Joseph H. Greenberg, 73-113. Cambridge, MA; MIT Press.
- Heine, Bernd(1997) *Poss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raiwa, Ken(2005) "Dimensions of Symmetry in Syntax: Agreement and Clausal Architecture." Ph.D. diss., MIT.
- Hoekstra, Teun(1994) "HAVE as BE Plus or Minus." In *Paths Towards Universal Grammar: Studies in Honor of Richard S. Kayne*, eds. Guglielmo Cinque et al. 199-215.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olvoet, Axel(2003) "Modal Constructions with 'Be' and the Infinitive in Slavonic and Baltic." *Zeitschrift für Slawistik* 48, 465-480.
- Išačenko, A. V.(1974) "On 'Have' and 'Be' Languages." In *Slavic Forum: Essays in Linguistics and Literature*, ed. Michael S. Flier, 43-77. The Hague; Mouton.
- Jeong, Youngmi(2007) *Applicatives: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from a Minimalist Perspectiv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Jung, Hakyung(2008) "The Grammar of Have in a Have-less Language: Possession, Perfect, and Ergativity in North Russian." Ph.D. diss., Harvard University.

- \_\_\_\_\_ (2009) "Null Prepositional Complementizers and the Dative of Obligation in Russian." In *Proceedings of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17. Ann Arbor; Michigan Slavic Publications.
- \_\_\_\_\_ (Forthcoming) "Innovations in the Rise of the Dative-Infinitive Modal Sentence in Russian." *Zeitschrift für Slawistik* 55 (4).
- Kayne, Richard(1993) "Toward a Modular Theory of Auxiliary Selection." *Studia Linguistica* 47, 3-31.
- Kiparsky, Valentin(1967) *Russische historische Grammatik*, Band II, Heidelberg.
- Kuz'mina, I. B. and E. V. Nemčenko(1971) *Sintaksis pričastnix form v russkix govorax* Moscow; Nauka.
- Lavine, James(2000) "Topics in the Syntax of Nonagreeing Predicates in Slavic."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 Mahajan, Anoop(1997) "Universal Grammar and the Typology of Ergative Languages." In *Studies on Universal Grammar and Typological Variation*, eds. Artemis Alexiadou and T. Alan Hall, 35-57. Amsterdam; John Benjamins.
- Mohanan, Tara(1994) *Argument Structure in Hindi*. Stanford, CA; CSLI.
- Newmeyer, Frederick(2005) *Possible and Probable Languages: A Generative Perspective on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bnorskij, S. P.(1927) *Imennoe sklonenie v sovremennom russkom jazyke*. Leningrad; Izd-vo Akademii nauk SSSR.
- Orr, Robert(1984) "An Embryonic Ergative Construction in Irish." *General Linguistics* 24, 38-45.
- Potebnja, A. A.(1888/1958) *Iz zapisok po russkoj grammatike* I-II. Moscow; Gosudarstvennoe učebno-pedagogičeskoe izdatel'stvo.
- Reinhart, Tanya(1996) "Syntactic Effects of Lexical Operations: Reflexives and Unaccusatives," *OT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 Roberts, Ian and Anna Roussou(2003) *Syntactic Change: A Minimalist Approach to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niševa, D. S.(1966) “Konstrukcija tipa zemlja paxat’ v sisteme sintaksičeskix sredstv vostočno-slavjanskix jazykov.” *Slavia* 35, 1–16.
- Svenonius, Peter(2004) “On the Edge.” In *Peripheries: Syntactic Edges and Their Effects*, eds. David Adger, Cécile de Cat, and George Tsoulas. 259–287. Dordrecht; Kluwer.
- Trask, R. Larry(1979) “On the Origin of Ergativity.” In *Ergativity: Towards a Theory of Grammatical Relations*, ed. Frans Plank, 385–404. London; Academic Press.
- van Gelderen, Elly(2004) *Grammaticalization as Economy*. Amsterdam; John Benjamins.
- \_\_\_\_\_ (2007) “The Definiteness Cycle in Germanic.” *Journal of Germanic Linguistics* 19, 275–308.
- \_\_\_\_\_ (2008) “Where Did Late Merge Go? Grammaticalization as Feature Economy.” *Studia Linguistica* 62 (3): 287–300.
- Wehrli, Eric(1986) “On some Properties of French Clitic Se,” In *The Syntax of Pronominal Clitics*, ed. H. Borer, 263–283,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Wierzbicka, Anna(1992) *Semantics, Culture, and Cognition: Universal Human Concepts in Culture-specific Configur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nti-agentivity of Russian. A Generativist Explanation

Jung, Ha-Kyung

The concept of 'anti-agentivity' has frequently been discussed as one of the key features of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In contrast to western culture, usually characterized as a culture of logic and rationalism, Slavic culture has been described as irrational, receptive, contemplative, and acquiescing to fate. This conception has been actively explored in such fields as literature and history, but has also been developed as a concrete theme in Russian linguistics.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base of Russian 'anti-agentivity' from a generative perspective and considers whether this generally accepted idea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Russian language and culture/mind can be justified in syntactic terms. In particular, I show that the HAVE/BE syntactic parameter and related syntactic structures such as applicatives result in dative-infinitive, dative-lexical modal, and dative-reflexive constructions, which, Wierzbicka(1992) suggests, reveal the anti-agentive character of Russian language.

The HAVE/BE parameter synchronically appears as a result of the presence/lack of a Case feature in the prepositional complementizer in the possessive structure. Historically, different phases of grammaticalization of an applicative-licensing preposition gave rise to this parameter. I show that the dative-infinitive construction arose as an extension of the HAVE/BE parameter and that the dative-lexical modal and dative-reflexive constructions derived from an ongoing grammaticalization process that resulted in the HAVE/BE parameter. Given that all these constructions are the consequence of a feature setting in a functional constituent, I argue that the so-called anti-agentivity based on the use of these constructions

is not a specifically Russian phenomenon but is a universal syntactic phenomenon without a functional motivation.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0. 10. 14
논문심사일:	2010. 11. 1 ~ 2010. 11. 15
심사완료일:	2010. 11. 20